

안상수 인천시장도 '성시화' 찬양 발언

조계종 종평위 공식해명·재발방지 약속 요청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이 인천지역 개신교 행사에 참석해 성시화운동을 찬양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1월 26일 인천 간석동 성산호도대학원에서 열린 성시화운동법안 설명 감사예배에 참석해 "인천은 전 세계에 파송한 1만 6000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돕는 세계적인 선교도시로 세계복음화의 관문이 될 것"이라며 "성시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천에 성시화운동 본부가 설립된 것을 270만 인천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국내 일간지와 기독교계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인천시 홈페이지에는 안 시장 발언을 비난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이행구씨(인천시민)는 "인천시 인구 260만중 약 78만의 기독교인을 제외한 182만 비기독교인은 거룩한 인천시 성시화 작업을 위해 인천을 떠나란 말이나"며 분개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월 5일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안 시장의 종교편향 행위와 발언은 국민화합을 저해함과 동시에 종교적 대립구도를 조장하고 있다"며 "2월 14일까지 공식적인 입장해명과 함께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의지표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일 기자



현등사 '돌아온 진신사리' 친견법회

이 조계는 이준인 2월 4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까지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 친견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2년 여 동안의 법적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삼성문화재단에서 제자리인 가평 현등사로 돌아온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게 됐다. 현등사주최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사진 글·사진·박재환 기자

"한암 스님 수행 배우자" 월정사 제3회 수행학림

근세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종정이었던 한암 스님(1876-1951).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평창 월정사를 비롯해 상원사, 중대 사자암 등지에서 제3회 한암 대중사 수행학림을 개최한다.

제가불자 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행학림은 '나를 닮은 108배' '참법 및 포살' '삼보일배' '좌선법 강의 및 지도' '철야정진' '한암 대중사 탄신제' '한암 대중사 사상 국제화술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등록금 10만 원. (033)332-6664-5 남동우 기자

25일 어린이지도사 고시 조계종 홈페이지에 배포

제1회 불교어린이지도사 고시가 2월 25일 오후 2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사찰을 재직사찰로 정하고 신도에게 수지 및 신도등록을 할인 사람 중 △종단으로부터 특수교육기관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의 졸업자 △유치원 정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거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은 응시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를 통해 배포되며, 자기소개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등을 첨부해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팀(02-2011-1904)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줄기세포 역분화 기술로 난치병 극복"

동국대·(주)임젠, 줄기세포은행 설립·공동연구 등 협약

동국대(총장 홍기삼)는 2월 7일 (주)임젠(대표 김기동)과 줄기세포은행 설립 및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연구에 관한 협약(MOA)을 체결했다. 지난 해 10월 25일 동국대와 (주)임젠은 줄기세포은행 설립 추진 및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연구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이미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 체결 내용은 (주)임젠이 보유하고 있는 줄기세포 역분화 기술을 이용해 줄기세포은행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시설과 장비를 동국대 일산병원에 설치하고, 7월 중 정식으로 줄기세포은행을 설립해 동국대, 동국대병원, (주)임젠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주)임젠은 역분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약개발, 불멸화 세포주를 이용한 신세대 기능성 화장품 원료 생산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또한 2년전 난자나 태줄혈액·골수 없이 환자 체세포를 곧바로 줄기세포로 만드는 역분화 기술을 세

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다. 임젠은 역분화 유도 줄기세포 관련 국내외 특허를 이미 8건 출원했으며, 현재 새로운 6건이 출원 중에 있다.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연구는 임젠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동국대(동국대 일산병원 포함)의 우수한 임상진단의 이상적인 신약협력 모델링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동국대는 향후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 연구 및 치료센터, 동국대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한 일산 지역의 메디클러스터 구축, 동북아시아지역 줄기세포 허브로의 도약 등의 야심찬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다.

동국대는 "그동안 대학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ABC+α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줄기세포은행 설립 추진에 관한 사업은 이 중 생명공학분야 특성화인 'B/Bio 전략'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국대는 "이러한 역분화 줄기세포 치료제의 개발연구는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동국대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 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니라, 인류의 난치성 질병극복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동국대 총장(오른쪽)과 임젠의 김기동 대표가 협약 체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 고

예비수험생·학부모님 '자비명상'으로 만점 도전!

본사는 예비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빛어질 수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를 드리고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가스님 자비명상'을 마련했습니다.

이 강좌는 부처님께서 장자 아들에게 설하신 <육방예경>에 근거한 것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1년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가 스님은 광주 마곡사에서 포교국장으로서 재직하며 4년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 마곡사를 대표적인 템플스테이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2003년부터 중앙대 겸임교수로서 '내 마음 바로 보기'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사: 마가 스님
- 참가인원: 100명(200명)
- 연락처: (02)2004-8279, 011-737-2658
- 참가비: 1인 2만원

- 장소: 대치3동 대치3문화센터
- 시간: 매 회 오후 3시~5시(2시간)

회차	날짜	장소
1차	2월 10일	대치3문화센터
2차	2월 11일	대치3문화센터
3차	2월 24일	대치3문화센터
4차	2월 25일	대치3문화센터

포교사대학원 신입생·케어복지사 모집

조계종 포교원 부설 포교사대학원(학장 혜종·조계종 포교원장은 포교현장에 필요한 전문분야 포교사 양성을 위해 5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불교신문화학과와 불교사회복지학과로, 각각 주간반과 통산반 약간명을 모집한다.

포교사단 단원으로서 자격포수 후 3년 이상 포교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한 사람은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형은 서류와 면접으로 나뉘며, 면접은 2월 24일 오전 10시 포교원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합격자 발표는 3월 2일.

졸업자취득자에게는 종단 전문포교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포교사대학원은 고행화 시대를 앞두고 복지현장에 필요한 케어

복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3기 케어복지사 수강생을 모집한다. 케어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번 강좌는 3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포교사대학원 교육관에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사회복지개론 △기본 간호 △상담기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케어복지론 등이며,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2급 케어복지사 자격증과 케어복지사교 육과정 이수수료증, 노인 및 케어관련 기관과 시설 취업 알선 및 자원봉사 연결 혜택이 주어진다. (02)927-0589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한글도메인 등록 주의하세요"

한글 도메인 등록과 관련해 사찰 및 불교계 단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전산기록팀은 "모 업체에 등록된 한글 도메인이 소용없게 됐으니, 모든 인터넷 제품업체를 통합해서 서비스하는 자신의 업체에 등록하라"는 내용의 전화가 종단 소속 사찰 및 단체에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2월 7일 밝혔다.

그러나 조계종에서 확인한 것에 따르면 △등록된 한글 도메인이 소용없게 됐다는 업체는 한글 키워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자신의 업체에 등록하라고 하는 곳은 아직 어떠한 서비스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남동우 기자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스님께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의 고행정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회향식이 봉행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걸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숙 남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컴퓨터(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리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11주 2월 8일 - 2월 14일 [162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리	
2월 8일[목]	김 제	-	대 야	23km
2월 9일[금]	대 야	-	서 천	23km
2월10일[토]	서 천	-	웅 천	27km
2월 11일[일]	서용천	-	보령대천	18km
2월12일[월]	보령대천	-	광 천	22km
2월13일[화]	광 천	-	갈 산	23km
2월14일[수]	갈 산	-	서산시	26km

제12주 2월 15일 - 2월 21일 [717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리	
2월15일[목]	서 산	-	당진읍	25km
2월16일[금]	당 진	-	삼교호	18km
2월17일[토]	삼 교	고성 화진포	금강산	300km
2월18일[일]		금강산 관광		30km
2월19일[월]	금강산	고 성	삼 교	300km
2월20일[화]	삼 교	-	안 중	24km
2월21일[수]	안 중	-	발 안	20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